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13) (5/24/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9 장 순종과 복종

대하 29:11-12 -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 127:1-2 -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도다.

마 11:28-30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권세 아래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만에 가득 차서, 조그만 일에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아도 안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세우신 권세 앞에 겸손히 복종할 때에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나 신분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왔습니다.

말씀과 해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므로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대하 29:11-12 -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솔로몬은 온 땅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시 127:1-2 -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도다.

우리가 나를 내려 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되심이다. 참된 순종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는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참된 순종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마 11:28-30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내려 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의 역사 가운데 영적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등등 세속적이며 외적인 어떤 조건이 우리의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서기를 원하시는 곳에 서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의 관건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만족을 누린다. 그 기쁨과 만족은 영적 행복의 표현이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종종 평화의 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포기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완벽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기꺼이 경청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생각해 낸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면, 그것은 한층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표입니다.

말씀과 해설:

믿음의 사람은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욕구와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좇아 가야 한다. 설사 내가 가진 것이 최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며, 그러한 순종을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내려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행 16:6-10).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 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가 내 뜻을 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할 때야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권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분별하고 묵상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잠 20:18 -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적 행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 성경과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과 권고를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섬세한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얀마의 무력 충돌과 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그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